

# 관광객 2배 증가... 기지개 활짝

### 익산시, 매력적인 관광상품 ·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결과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가 방문의 해를 맞아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관광객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88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만여명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방문객은 총 150만여명이었지만 올해 5월까지 이미 89만여명이 방문하며 지난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가 역사와 종교 농촌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한 상품으로 관광

객이 익산만의 특별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선 28곳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여행도 즐기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국내 유일하게 4대 종교 성지를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치유 힐링 프로그램 '다리로 온 익산여행'이 관광객들의 큰 관심 속에 지역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연과 연극 농촌체험까지 어우러진 문화콘텐츠행 투어 '익산별별여행'은 꾸준한 인기 속에 순환 중이다.

시는 이 기세를 이어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이달부터 관광 캐릭터 마뽀이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족들이 함께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코리에 꼬리를 무는 마름의 익산여행'이 오는 13일부터 본격화된다.

전라북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체험활동을 시작으로 공공승마장, 아가페정원, 글로벌문화관을 포함한 투어가 함께 진행돼 역동적인 액티비티와 힐링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농촌체험은 매주 다른 주제로 체험이 가능해 날마다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김미정 부시장이 7일 군산내항 및 군산항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군산새만금신항 개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신항만 운영 차질 없도록 최선을”

###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군산항 현장점검 나서

군산시 김미정 부시장이 7일 군산내항 및 군산항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군산새만금신항 개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 부시장은 금강도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 군산내항의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현장을 방문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행하고 있지 않는 여객선 상황을 살폈다.

또 CCT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현황 등을 청취한 후 군산항 제2준설도 부

지장 및 7부두 아적장 등 4~7부두에서 추진 중인 국가예산의 주요 사업장과 관련해 군산항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최근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과 관련된 군산새만금신항만 개발현장을 찾아 신항만 및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2024년 이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2026년 군산새만금 신항만 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순조’

### 군산시, 사업 완료시 정주여건 크게 개선 기대

군산시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감내해온 지역에 대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옥서면을

비롯한 주변지역 일대에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해 군산공항로, 태운로, 백토고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8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46억원을 확보해 4토지-리조트단지조성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신덕~개정마을 도로확장, 옥서(304호)농어촌도로 확장공사 3건에 대해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2건은 급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에 공여구역 주변 교통소외지역에 도로 확포장공사와 동부외 서부권을 잇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옥서면과 옥구를 일원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 완료 시 교통 환경 및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여름휴가는 말도 · 명도 · 방축도서’ ...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선정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이하 여름섬)’에 선정됐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섬은 관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도 참여해 전국에서 군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의 말도, 명도, 방축도는 유인섬 3개와 무인섬 2개를 인도교량과 트래킹코스로 연결하는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여러 섬이 갖고 있는 특색을 한



번에 관광하기 좋으며, 오는 2024년 전 구간을 개통해 전국의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의 끝 섬인 말도에는 지난 1909년에 설치돼 1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등대와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린 신비의 천년송이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선정된 말도 습곡구조가 절벽에

노출되어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나 볼 수 있다.

명도는 마을 내 산책로를 통해 오진여 전망대와 구렁이 전망대로 갈 수 있다.

또한 구렁이 전망대에서는 말도와 보봉도가 한눈에 보인다. 또한, 간조시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축도에는 동백숲길과 해변산책로가 어우러져 트래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며, 무인섬 광대도와 연결된 출렁다리에서 서해를 지키는 제일관문인 독립문비위를 조망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시내버스 지·간선제 개선방안 마련

익산시의회가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섰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소길영)’는 7일 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시행사인 (주)전북교통연구원으로부터 △대중교통(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버스 지간선제 및 DRT 도입에 따른 만족도 조사 분석 등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계획보고와 이에 대한 연구회 위원들의 방청질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구단체 대표인 소길영 의원은 “신속한 이동권 보장과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던 지·간선제 도입 초기 전망과는 달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간선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는 소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경진 의원, 김충영 의원, 박중대 의원, 유재구 의원, 이준성 의원, 조은희 의원, 한동연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4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예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결합하고, 서은식·송미숙·이연화·윤신애·지혜준·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의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익산시는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공동주택단지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시설물, 용벽, 배수로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139개 단지로 해당 관리주체는 절개지 훼손, 축대, 용벽,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점검표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은 현장 확인과 보수계획을 확인한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